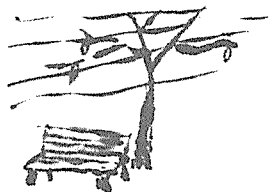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간헐화증을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에 성공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정기적인 검사를 받자

이 훈

서울시 도봉구 공능동 237번지 · 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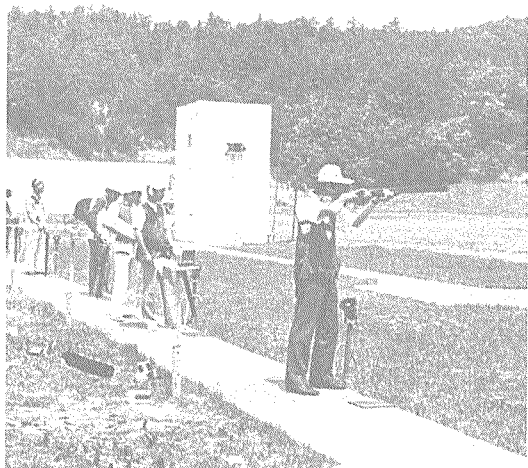
해마다 가을이 되면 2년전 내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을 어김없이 상기하게 된다.

나는 노부모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거느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읍지로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우리 가족의 생활터전이 되고 있는 가게 하나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요롭지 못한 내게 있어서 평소 건강이라는 것은 남들이 얘기하는 소위 재산목록 1호였다.

그런데 나는 굉장한 애주가인데다가 사업상 자주 술좌석을 가져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내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여러가지로 여유가 없었던 탓으로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진 않았었다.

어쨌든 평소에 아픈 곳이라고는 없었고 식욕도 무척 왕성했으며, 아무리 폭음을 한 다음날이라도 정확한 시간에 거뜰히 일어나 활동할 수 있었다. 물론 약이니, 병원이니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판



◀평소에 아픈 곳이라고는 없었고 식욕도 무척 왕성했으며, 아무리 폭음을 한 다음날이라도 정확한 시간에 거뜬히 일어나 활동할 수 있었다. 물론 약이나, 병원이니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었다.

계없는 일이었다.

2년전 여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친구가, 지나는 길에 들렀다면서 찾아왔다. 그는 평소에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곤 했었는데, 그날 건강관리 협회라는 곳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경제적 부담도 적고, 검사도 간단하니 까 나도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것이었다. 술을 즐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나는 그때 큰 소리로 웃으면서 건강검사가같은 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 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검사해서 관리해야 하며, 병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의 얘기가, 공연히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

쾌하기까지 했다.

그후 난 그의 방문과 그의 이야기 따위는 잊어버렸고 여전히 바쁜 생활 속에서 계속 술을 마셔야 했었다.

그해 가을, 그 전날도 변함없이 폭음을 했었던 어느 아침이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입이 갈갈해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지를 앓았다. 그날은, 아마 과로를 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그 이후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식욕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던지, 집에서는 영양제나 보약을 먹으라는 등, 병원에 가보라는 등, 이것저것 권하기 시작했고, 주위의 친구들 역시 혹시 모르니까 예방삼아 종합진단을 해보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도 난 별로 내 자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또 한번 검

갑자기 떨어진 식욕때문▶  
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던지,  
집에서는 영양제나, 보약을  
먹으라는 등, 병원에 가보  
라는 등, 이것저것 권하기  
시작했고, 주위의 친구들  
역시 혹시 모르니까 예방삼  
아 종합진단을 해보라고 말  
했다.



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야 할 돈의 엄청  
난 액수 때문에 그들의 말을 흘려버렸  
다.

그런데 문득, 지난 여름 나를 방문했  
던 친구의 얘기가 생각났다. 그가 검사를  
받았던 기관에 관한 얘기가 어렴풋이 머  
리에서 맴돌았다.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했다. 먼저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지난번의 검  
사 결과 당뇨병에다가, 고혈압 증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에 다니면서 치  
료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당시의 내 느낌-나의 건  
강 상태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전에  
얘기했던 검사소에 같이 갈 것을 부탁했  
다.

그는 쾌히 승락을 해주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 그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건너편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로 향했다. 늦은 가을비가 부슬거리던 오  
후, 김포가도를 달리는 나의 마음은 무  
겁기 짝이 없었다. 강서구청 건너편 정  
거장에서 내려 한국건강관리협회 2층의  
상담실을 찾아가는 동안, 설마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끝없이 교차되었다.  
검사소 2층에 들어서자 우선 여러가지  
검사실이 눈에 띄었고, 복도 정면으로 상  
담실이 보였다.

나는 우선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사소의  
韓庚容 소장님과 상담을 했다. 그때 나  
는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몇가지 점  
을 발견하고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손바닥에 붉은 기가 있다는 것과 소변의  
색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소장은 상담 후 성인병에 대한 간기  
능 검사에 유의할 것을 말씀해주셨고 약  
30분 동안 나의 대한 검사가 실시되었다.



◀나는 우선 건강관리협회 검사소를 찾아갔다. 그때 나는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몇가지 점을 발견하고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 신청을 한 후 채혈을 하고 소변을 받고, 그리고 심전도를 찍었다. 너무 간단한 검사라서 오히려 허전하기까지 했었지만, 피에서 고혈압, 당뇨병, 간염, 뇌졸중, 동맥경화, 심장병, 간경화증, 백혈병 기타 등의 여러 질환이 발견된다는 말에는 적이 놀라기도 했다. 또한 더욱 놀랐던 것은 그 모든 검사를 다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만여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검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열흘 동안도 여전히 술을 마셔야 하는 생활은 계속 되었고, 피로와 식욕 감퇴도 마음 때문인지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통보서를 받아드는 순간 나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암담한 기분이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있던 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다.

간기능에 유소견자라는 빨간 글씨, 그

리고 정상치 보다 훨씬 높게 적혀져 있는 Got, Gpt의 수치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평소에 심하게 아픈 곳이 없었는데, 그런 결과를 받고 보니, 검사의 신빙성을 은근히 의심해 보기도 했다.

며칠을 그대로 고민만 하다가, 나는 건협이 권고대로 병원에 가보기로 하고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학 부속병원을 찾아갔다. 나를 진찰했던 의사선생님은 우선 건협의 종합검진 결과 보고서를 읽어 보신 후 몇가지 자각증상에 관해 물으셨고, 채혈을 하게 하고는 며칠 후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다.

검사를 받고 병원을 나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며칠동안, 나는 별별 악몽과도 같은 생각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정말 내가 병에 걸린건가.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병원에 입

“간경화증세가 있으시군요. ▶  
 요. 악화되기전에 발견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만 조금  
 만 더 내버려 두었다면 꽤  
 심각할 뻔 했습니다. 일단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  
 를 봅시다.”라고 말하는 의  
 사 선생님.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원이라도 하게 되면 가게는 누가 운영하  
 나.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은.....

그러면서도 한가닥의 희망처럼 붙잡고  
 늘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생각은, 건강관리  
 협회의 검사가 차라리 틀리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병원을 찾아가 나를 기다  
 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무정스런 결과  
 였다.

“간경화 증세가 있으시군요. 악화되기  
 전에 발견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조금  
 만 더 내버려 뒀었다면 꽤 심각할 뻔 했읍  
 니다. 일단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봅시다. 그렇다고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술은 절대 금물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신 한은 외출을 삼가시  
 고 택에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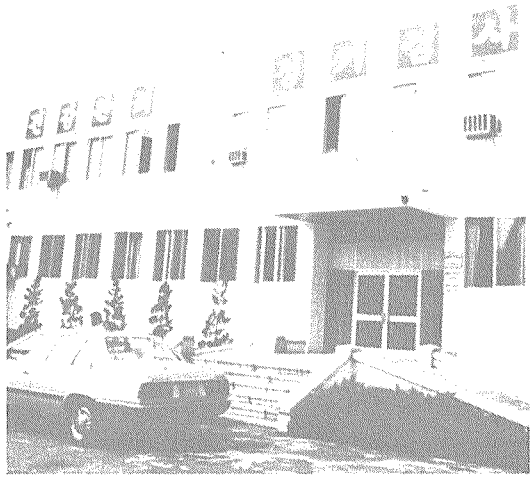
필요 이상의 자신감만을 가지고 나 자  
 신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

는 따위의 일은 이제 소용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  
 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가게에도 나  
 가지 않은채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셔댔던  
 내가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않았던 병으  
 로 매일을 집안에서 보내자니, 세상에 그  
 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는 것 같았다. 차  
 라리 신체의 어딘가를 다쳐서 치료를 받  
 는 것이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  
 동도 하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식이요법, 투약, 정기적인 검사  
 를 견뎌내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  
 을 조금씩 해나가야 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었다. 뛰쳐나가  
 전처럼 살고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했지  
 만, 나는 참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나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나의 가

나의 건강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건강을 되찾는데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한국건강관리 협회의 도움이었던 같다.



죽을 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경과한 후 나의 병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고, 가계의 일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건강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건강을 되찾는데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도움이었던 것 같다. 만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도 별 부담이 없는 검사 기관이 없었다면, 건강은 사전에 검사해 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후 나는 가족들도 견협에 데려가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해주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해 줄 생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은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해 모든 병을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한국건강관리 협회를 찾아가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앞으로도 항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기관이 되기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바라고 싶다.

이달의 건강 표어

병든다음 치료보다

검사 받아 예방하자

● 한국 건강관리 협회